

아카데미 후보작 만나세요



광주극장·CGV 터미널점 등 ‘더 페이버릿 ...’·‘로마’·‘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등 상영

오는 25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열리는 91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주요 후보작들이 속속 관객을 만나고 있다.

특히 CGV아트하우스는 아카데미 후보작 기획전 을 마련했고 최대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로마’는 광주극장에서 재개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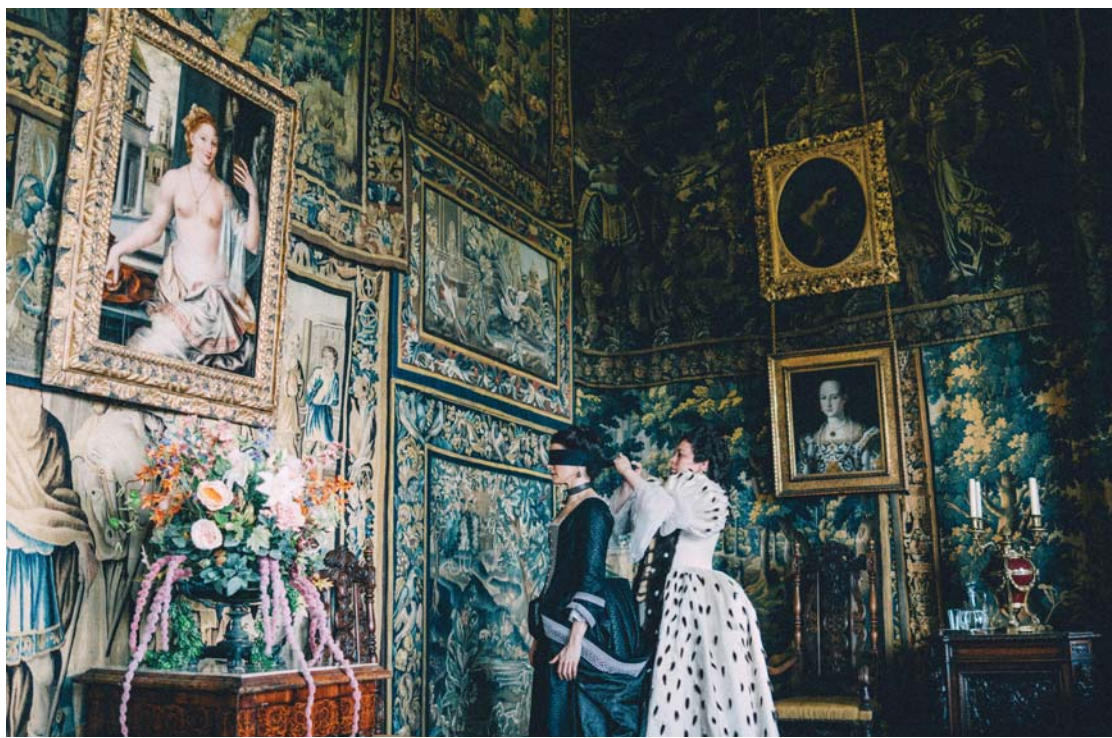
21일 개봉한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감독 요르 고스 란티모스)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 주조연상 등 총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로마’와 함께 최 다 부문 노미네이트됐다. 영화에서 올리비아 콜맨은 히스테리하고 변덕이 들끓는 영국 여왕 앤 역할을 맡아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앤 여왕의 오랜 친구이자 실제 사라 제닝스(레이첼 와이즈)와 신분 상승을 노리는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 하녀 에비게일 힐(엠마 스톤)은 여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친다.

올리비아 콜맨에 맞서는 또 다른 여우주연상 후보 글렌 클로스는 27일 개봉하는 ‘더 와이프’ (감독 비온 룬게)에서 만날 수 있다. 72세 노장 글렌 클로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남편의 성공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아내를 연기했다. 글렌 클로스는 오스카상 후보에 6번 올랐지만 이번이 고배를 마셨다. 두 후보는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76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각각 뮤지컬코미디, 드라마 부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작품상·감독상·각본상·여우주연상 등 최다부문 (10개) 후보에 오른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는 오는 26일부터 광주극장에서 앙코르 상영된다. 온라인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한 ‘로마’는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광주극장에서만 볼 수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이 영화의 최다 수상 여부가 주목된다. 그외 71회 칸영화제에서 최대 문제작으로 떠오른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살인마 잭의 집’은 2월22·23일, 3월1일·2일 4차례에 걸쳐 상영한다. 문의 062-224-5858.

CGV 광주터미널점은 오는 3월2일까지 국내에서 아직 개봉하지 않은 주요 후보작을 상영하는 ‘아카데미 프리미어 데이’를 진행한다.

오는 23일 오후 4시에는 장편 다큐멘터리·주제가상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로마’

후보에 오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나는 반대한다’ (감독 벤티 웨스트, 줄리 코헨)가 상영된다. 각본상 후보에 오른 ‘퍼스트 리포트’ (24일 오후 2시)와 작품상·감독상 등 8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바이스’ (3월3일 오후 4시)도 광주 관객을 차례로 만난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하우스 홈페이지(cgv.co.kr/arthouse)



‘더 와이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가버나움’ (외국어영화상 후보), ‘콜드 워’ (감독상·외국어영화상·편집상), ‘그린북’ (작품상·남우주연상 등 5개 부문) 등도 광주극장·CGV 광주터미널점·목포 시네마라운지MM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팽목-4·16 기억을 새겨라’ 사진전

28일까지 bhc 갤러리 27번가... 24일 일일호프

기록 사진전 ‘팽목-지금 그곳에 4·16 기억을 새겨라!’가 오는 28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bhc 갤러리 27번가에서 열린다.

팽목 4·16 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대책위와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팽목항에 세월호를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염원을 담아 마련된 전시다.

현재 진도항 개발공사가 한창이지만 이곳에 4·16을 기억하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책위는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림비 건립, 기억문화제 등 작은 행사가 가능한 팽목 4·16 공원 조성, 참사 현장의 모든 자료 등을 만날 수 있는 팽목 기록관 건립, 옛 안치소를 알 수 있는 표지석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팽목항을 지켜온 시민분향소의 모습과 팽목항에서 매달 이어져 온 시민들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과 공사장으로 변한 팽목항의 사진 등이 전시된다.

한편 오는 24일(오후 4시~밤11시)에는 팽목을 위한 일일호프도 열릴 예정이다. 후원금(농협 2014041618 박미자)도 받는다.

문의 010-8957-0350, 062-223-272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독일박물관, 불법 반출 ‘조선 문인석’ 36년만에 반환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36년 전 불법 반출된 뒤 독일 박물관에 들어간 조선 시대 문인석(사진) 한 쌍이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독일 함부르크 로텐바움세계문화박물관(옛 민족학박물관)이 보관 중인 조선 중기 문인석 2점을 내달 말 한국에 반환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인석 귀환은 외국 박물관이 우리 유물의 소장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파악한 뒤 자진해서 돌려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문화재 환수의 모범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이라고 재단은 덧붙였다.

문인석 두 점은 제작 시기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로 추정되며, 한 점은 높이 131cm·가로 40cm·세로 32cm이고 다른



한 점은 높이 123cm·가로 37cm·세로 37cm다. 손에 홀을 쥔 모습이나 의복 형태는 유사하다. 문인석 두 점은 1983년 독일인 헬무트 페퍼가 인사동 골동품상에게 사들이면서 독일로 건너갔고, 로텐바움박물관이 1987년 구매

했다고 알려졌다.

문인석은 다음 달 19일 로텐바움박물관에서 열리는 반환식 이후 국내에 돌아와 4월께 양수 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개된다.

/연합뉴스

‘국악그룹 늘숨’의 춘향×심청

23일 전통문화관

‘국악그룹 늘숨’이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무대에 선다.

지난 2006년 창단한 공연예술단체 ‘늘숨’은 춘향가와 심청가를 현대적인 기악·성악으로 재구성한 앨범 ‘춘향, 꽃파우다’를 냈다.

‘포 더 퍼블릭(For the Public) 프로젝트 춘향×심청’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광안루에서 그네 뛰는 춘향을 보고 몽룡이 첫눈에 반한 감정을 표현한 기악곡 ‘로맨티코’를 시작으로, 몽룡

을 그리는 춘향의 애달픈 마음을 표현한 ‘문 라이트’가 이어진다. 또 몽룡의 암행어사 출두 대목을 타악기로 연주한 ‘아월비 백’과 앨범 ‘공양미 삼백석’ 수록곡인 ‘블랙 오션’, ‘마담 뽀’도 연주한다.

이날 허동관(타악), 윤민석(피리·태평소), 임영대(가야금), 임황철(대금·소금), 김정민(아쟁), 황성훈(드럼), 정해중(베이스기타), 안소정(건반), 윤혜선(노래)이 출연한다.

오는 3월2일 공연에는 ‘프로젝트 앙상블 란’이 진도 씻김굿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료 관람. 문의 062-232-15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